다시 푸는 경서

수심결(修心訣) ⑭

自性門則曰 任運寂知
자성문즉왈 임운적지
元自無爲 絶一塵而作對
원자무위 절일진이작대
何勞遺蕩之功 無一念而生情
하로견탕지공 무일념이생정
不假忘緣之力 判云此是頓門箇者
불가망연지공 판운차시돈문개자
不離自性 定慧等持也
불리자성 정혜등지야
隨相門則曰
수상문즉왈
稱理攝散 擇法觀空
칭리섭산 택법관공
均調昏亂 以入無爲
균조혼란 이입무위
判云此是漸門劣機所行也
판운차시점문열기소행야
就此兩門定慧 不無疑焉
취차양문정혜 불무의언
若言一人所行也 爲復先依自性門
약언일인소행야 위부선의자성문
定慧雙修然後
정혜쌍수연후
更用隨相門對治之功耶
갱용수상문대치지공야

고루 닦은 뒤에 다시 수상문, 즉 상(相)을 따르는 방법으로 경계를 다스려나가야 합니까. 아니면 먼저 상을 따르는 공부로써 혼침과 산란을 고루 다스린 뒤에 자기 성품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若先依自性定慧則任運寂知
약선의자성정혜즉임운적지
更無對治之功
갱무대치지공
何須更取隨相門定慧耶
하수갱취수상문정혜야
如將皓玉 彫文喪德 若先以隨
여장호옥 조문상덕 약선이수
相門定慧 對治功成然後
상문정혜 대치공성연후
趣於自性門則宛是漸門中劣機
취어자성문즉완시점문중열기
悟前漸熏也 豈云頓門箇者
오전점훈야 기운돈문개자
先悟後修 用無功之功也
선오후수 용무공지공야
若一時無前後則二門定慧
약일시무전후즉이문정혜
頓漸有異 如何一時竝行也

"돈문과 점문의 선정과 지혜 다른데 어떻게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나요"

爲復先依隨相門 均調昏亂然後
위부선의수상문 균조혼란연후
以入自性門也
이입자성문야

돈점유이 여하일시병행야

자기 성품이란 '걸림없는 고요함과 아는 것이 원래 무위여서 하나의 티끌도 상대함이 없으니 어찌 번뇌를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한 생각의 망령된 정(情)도 일어남이 없으니 반연을 잊으려 힘쓸 필요도 없다.' 하고는 결론짓기를 '이것이 담박에 깨닫는 문(頓門)에 들어간 사람이 자기 성품을 떠나지 않고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지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을 따르는 문(隨相門)은 '이치에 따라 산란한 마음을 거두어 법에 따라 공을 관조하여 혼침과 산란을 고루 다스려서 무위에 들어간다' 하고 결론 짓기를 '이것은 점문의 열등한 근기의 수행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문의 선정과 지혜에 대해서 의심이 없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수행함에 있어서 먼저 자기 성품의 선정과 지혜를 다 닦은 뒤에 다시 대상에 따라 다스려야 하는 공력이 없을 텐데 어째서 수상문, 즉 상을 따르는 선정과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마치 흰 옥에 무늬를 새김으로써 본바탕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먼저 상을 따르는 방법으로 선정과 지혜를 얻어서 대상에 따라 다스리는 공부를 완성한 뒤에 자기 성품의 문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점차로 수행하는 열등한 근기가 깨닫기 이전의 점차로 닦아나가는 공부이니, 어째서 돈문(頓門)의 사람이 먼저 깨닫고 뒤에 닦아나가되 노력 없는 노력을 쓰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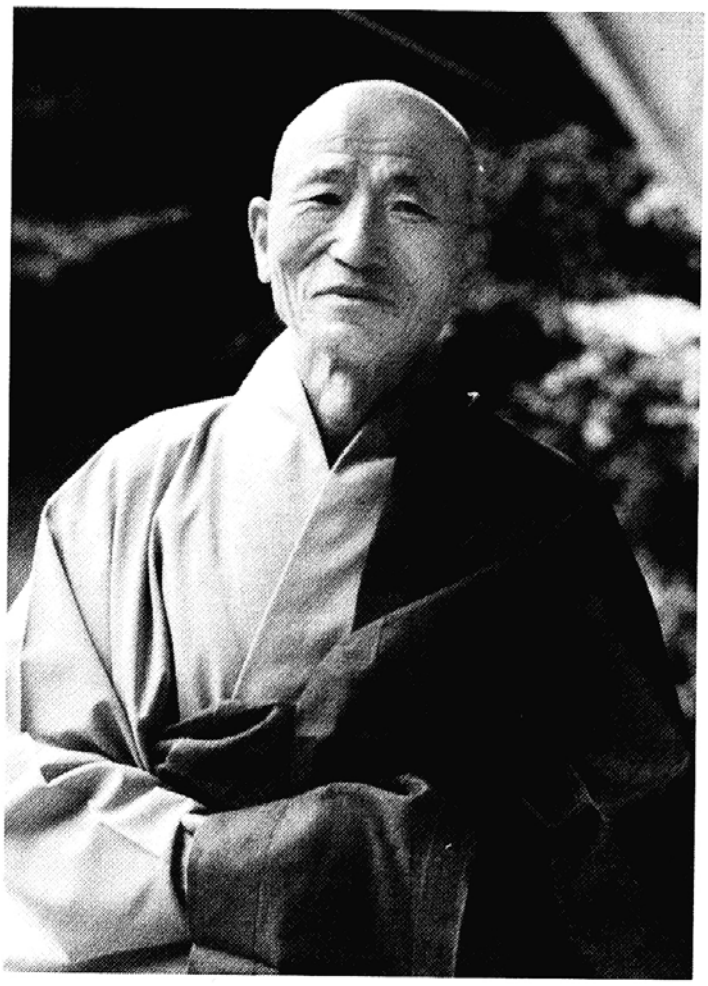
만약 전후가 없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돈문과 점문의 두 가지 문의 선정과 지혜가 다른데 어떻게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큰스님 수행한담

"마음을 비울수록

영월스님 〈법해사 주지〉



스님이 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초발심자경문〉입니다. 모든 수행자들이 일체의 욕락을 뛰어넘어 복과 지혜를 겸하여 닦을 것을 당부하고, 수행의 길잡이가 되는 계를 설해 놓았기 때문이지요. 거기에는 스님 생활하는데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재물과 색을 탐하는 마음이라고 분명히 해놓고 있습니다. '재물과 색의 화는 독사보다 심하니 몸을 펴 그름을 알아 항상 멀리 여의어라' 하고 일러둔 것이지요. 색을 좋아하면 재물을 탐하게 되어 있고 색을 탐하면 몸을 청정히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물이나 색을 탐하게 되면 자연히 상을 내게 됩니다. 옛부터 스님들 감투는 닭벼슬만도 못하다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스님들은 감투에 대한 상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는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처지는 어떻습니까. 사회사람들이 오히려 스님네들한테 제발 감투싸움 그만 두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느냔 말입니다. 스님들이 목숨걸고 벗어던져야할 감투에 대한 집착과 명예, 재물에 대한 탐착을 새삼 질타를 통해 일깨우고 있는것 아닙니까. 더도말고 처음 출가해서 배웠던 〈초발심자경문〉 내용만 명심하고 실천한다 하더라도 이지경까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말법시대일수록 우리는 어서 빨리 지혜를 갖추어야 할것입니다. 지혜의 눈은 어두우면서 입으로만 염불외고 불교는 어떻고를 떠들어대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스님들과 신도들이 그저 시주 많이 모아서 절 번듯하게 지을 궁리나 하고 성불에는 아예 관심도 없어보이고 포교마저 게을리 합니다. 몸뚱이마저도 버리고 가는 것이 인생인데 그토록 물질에 집착하는지 여간 걱정이 아닙니다. 물론 제대로 수행자의 길을 가고 있는 납자들도 있지만, 세속에서나 따질 부귀와 영화에 관심을 두는 현상을 탓하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신도들에게 말합니다. 목탁 두드리고 염불하는 것만이 불공이 아니니 덕높은 스님들 법문을 많이 듣고 공부하라고 합니다. 법문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삼독이 끈질기다 해도 좋은 법문을 듣고 마음을 닦으면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절로 생깁니다. "심(心) 즉 불(佛)이라"는 말처럼 마음이 곧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되니 마음 닦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미혹한 중생이 마음을 깨치면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항시 마음을 비우라고 말합니다. 저승길 노자는 돈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부지런히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고 참선이든, 주력이든, 염불이든 일심으로 정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 생전에 부처님 형상만 모시지 말고 부모님을 생불로 모시고 받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불교의 자비요, 효의 근본입니다. 불법을 어디 딴 곳에서 찾고 절에서만 찾는다면 오히려 불법에서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식도, 친구도 절대 대신 가줄 수 없는 죽음의 길에 직면했을 때 부지런히 닦은 정진력이 지옥마저도 과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정진하는 이들은 얼굴이 맑고 밝습니다. 흔히들 사주다 뭐다 말을 많이 합니다만 사주보다는 관상이 좋아야하고 관상보다는 심(心)상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심상이 좋으면 관상은 저절로 따라 좋아지는 것이요, 그러면 사주는 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따르는 관상을 책임 질 수 있도록 부지런히 심상을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약력
- 1928년 양산 물금 生
- 44년 군산 은적사 출가
- 48년 범어사 몽산스님을 은사로 동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받음.
- 범어사, 통도사, 선방에서 정진.
- 장산사 주지
- 대한불교 종군 포교사 역임
- 관음종 부산경남 초대 종무원장
- 현재 법해사 주석

"사주관상보다 심상이 중요하죠 심상좋으면 관상 절로 좋아지니 자기관상 책임질 수 있게 정진을"

다.

요즘은 나는 바라는 것이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저 여시여시하게 지내는데 이것이 이른바 "마음을 비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크지 않은 절이지만 운동 삼아 도량 주변 잡초도 뽑으며 소일하고 있지요. 밤에도 한숨만 자고 깨면 어떻게든 이 몸을 벗기 전에 공부를 해야지 하는 결심으로 반야심경이나 광명진언을 합니다. 아주 열심히 하거든요. 그리고 조그만 절이지만 이 절을 인연 닿는 이가 나타나면 넘겨줄 생각입니다. 뭐 갈준비 하는 것이지요. 신도들이 "왜 불사를 안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절을 크고 번듯하게 잘 짓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공부를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주위를 통해 보아왔지만, 절 불사에만 집착하면 그것 때문에 자꾸 재물에 착을 두게 됩디다. 요즘은 재물에 끄달리고 상에 끄달려서 제대로 공부하는 수행인이 드문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스님네들을 만나면, 스님으로서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내세우기보다는 자기 내면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시급한 일이라고 잔소리처럼 말합니다.

나는 16살에 군산 은적사에서 출가했습니다. 특별히 불법을 알아서 절에 간 것은 아니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아버님께서 절에 가라고 하기에 그냥 갔어요. 고향이 양산인데 전라도 은적사까지 갔으니 말도 다르고 영 어색하더군요. 멀리 보낸다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첫날 저녁에 밥 먹고 잤는데 새벽에 '똑딱 똑딱' 하는 소리가 들리기에 그것이 목탁소리인줄도 몰랐을 정도입니다. 어린 마음에 우리가 멀리서 왔다고 맛있는 거 해 줄려고 준비하는 도마 소리인줄만 알았습니다. 참 어리고 순진하기만 했지요. 새벽에 깨워 일어나니 종을 치고 아침 예불을 하는데 모든 것이 신기하더군요. 그렇게 〈초발심자경문〉을 배우기 시작했는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합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소 재
· 팔 괘 :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 규 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자내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내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